

‘민족 개념’의 정형화와 ‘다언어 = 탈배제성’의 문제*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 스탈린을 중심으로

전성곤**

I. 들어가며

전후 일본에서는 스탈린이 제시한 ‘민족’ 개념이 바이블이 되었다. 스탈린은 민족을 ‘언어의 공통성, 지역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화의 공통성 속에 나타나는 심리상태의 공통성’¹⁾이라고 논했다. 이를 두고 다카시마 젠야(高島善哉)는 전후 일본에서 스탈린의 민족 이론의 정형화(定型化)를 이론 프로세스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스탈린의 민족 이론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²⁾ 바로 이 지점이 본 논고의 출발점이다. 사실 민족 문제의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HK+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교수

1) 스탈린著, 全集刊行会訳(1953). *マルクス主義と民族問題* *マルクス主義と民族問題* 東京: 大月書店, 50.

2) 高島善哉(1970). *民族と階級* 東京: 現代評論社, 146.

원류는 19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내 다민족 구성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민족 원리의 기저에 ‘영토와 민족, 언어와 민족’을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즉 이 시기에는 민족, 민족주의의 독립이나 연방제 다문화의 상호공존이나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상상의 공동체’와 ‘국가 창조’론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후 일본에서는 이 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유럽 민족주의를 ‘보편적 공동체 논리’로서 국민적 개념화해 갔다. 그렇지만 스탈린의 민족 이론은 ‘조합주의적 작품 이론’이었고, 근대주의의 파생물임을 간과하면서 내면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일본에서는 민족주의를 형성하면서 그러한 민족주의에 갇히게 된 것이다.

스탈린의 민족 이론은 19세기 동유럽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파생된 개념들을 수용·비판하면서 형성되었다. 그 영향관계의 중심인물은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³⁾, 카를 레너(Karl Renner)⁴⁾, 오토 바우어(Otto Bauer)⁵⁾였다. 민족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카를 카우츠키가 만든 민족 개념 구도 속에서 파생된 것으로 레닌의 민족 이론으로 다시 스탈린으로 계승되었는데, 스탈린의 민족 이론은 이들의 영향관계 속에서 창출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⁶⁾ 이를 종합해 보면, 민족 이론의 기원은 동유럽이라는 ‘세계’의 정치적·문화적 배경 속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형성된 이론이 확대되어 러시아와 동아시아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⁷⁾ 그리고 이 논의들은 어니스트 겔너(Ernest Gellner)의 민족과 민족주의론⁸⁾이나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론 그리고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민족·민족주의론⁹⁾

3) 相田慎一 (1997). 카우츠키. 民族問題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5.

4) 倉田稔 (1997). 렌너. 民族問題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127.

5) 上条勇 (1997). 바우어. 民族問題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153.

6) Hobsbawm, E. J. (201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역 (2019).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비, 136-137.

7) 田中克彦 (2000). ソビエト・エトノス科学論-その動機と展開. 一橋大学博士論文. 大学院社会学研究科・社会学部 7-8.

8) 장문석 (2019).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49-51.

9) 박찬승 (2019).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학. 36-37.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의 토대가 되었다.¹⁰⁾ 그후 지금도 여전히 ‘민족’이라는 용어는 ‘에스니시티, 국민국가, 네이션, 내셔널리즘’ 사이의 경계가 애매하고 공통된 이해가 부재인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은 상호 관련성이 강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른 뜻을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정의나 의미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¹¹⁾

영어의 종족, 민족, 민족됨(nation-ness),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의 정의가 매우 혼재적임을 번역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¹²⁾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글에서는 민족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과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의 논쟁 그리고 스탈린이 정의한 민족 이론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이 무엇이고 민족 이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창출되어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스탈린은 잘 알려진 것

Cornell Univ Pr, 2008, 1-150.

- 10) 아-네스토·겔너. 加藤節監訳 (2020). 民族とナショナリズム. 東京: 岩波書店, 250.
- 11) 塩川伸明(2008). 民族とネーション-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難問. 東京: 岩波新書, i-ii. 塩川伸明 (2008). 民族とネーション :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難問. 송석원 역 (2015). 민족과 네이션. 서울: 이담, 8-9.
- 12) Anderson, B.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白石さや・白石隆訳 (1998). 増補想像の共同体-ナショナリティの起源と流行. 東京: NTT出版, 19-22. 영어판 원제목은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인데, 마지막의 Nationalism을 내셔널리즘이라고 가타카나로 표기했고 본문에서 national 이라는 용어는 국민적이라고 번역했고, 내셔널리티를 국민적 귀속이라고 표현하면서 원어 national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통상’ 국민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실은 ①국민적 성격(국민성), ②내셔널리즘, ③국민적 지위, 귀속, 특히 법적지위(국적), ④국민으로서의 정치적 독립 또는 국민으로서의 존재, ⑤출자(出自), 전통, 언어 그 이외를 공유하고 국민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인민(국민) 등의 의미를 갖고 국민성으로는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언어가 갖는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하여 내셔널리티라고 하고, 문맥상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적 귀속, 국적, 국민 등의 번역을 붙이기로 한다. 네이션은 국민, 내셔널리티는 국민적 귀속,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라고 적으면서 정의는 매우 어렵다. Anderson, B.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희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19-23. 한국어 번역본에는 Nationalism을 민족주의로 표현했고, ‘national’이라는 용어를 민족이라고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nationality는 민족성이라고 적었고 민족됨(nation-ness), 네이션을 민족, 내셔널리티를 민족성,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 용어의 분석뿐만 아니라 정의가 매우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적고 있다.

처럼 독재자적 정치가이며 레닌 이론의 변형자로서 후대에 비판을 받게 되지만,¹³⁾ 스탈린의 민족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자의 민족 문제’를 고찰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하여 스탈린이 정의한 민족 이론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족 이론의 역사적 흐름과 내셔널리즘이나 민족주의로 번역되는 이 용어들의 상상과 창조の内容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일본에 수용된 민족 이론가들의 위상 재확인

일본에서 민족 개념이 형성되면서 국민 개념과 만나게 되는 논리는 메이지기(明治期)에 초점을 맞춰 분석되기도 한다.¹⁴⁾ 그러나 메이지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전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민족 개념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민족주의를 고안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동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로부터 발신된 민족 이론이었다. 전후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에 주목했다. 마루야마 게이치(丸山敬一)는 오토 바우어를 마르크스주의자 중 민족을 정의한 최초의 인물¹⁵⁾이라고 평가하며 오토 바우어로부터 민족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논했다. 반면 아이다 신이치(相田愼一)는 바우어 이전에 이미 카우츠키가 1887년 「근대의 민족성」이라는 논고에서 민족에 대해 논했으며 카우츠키가 마르크스주의자 중에서 최초로 민족을 정의한 인물¹⁶⁾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니카 가쓰히코(田中克彦)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민족 이론을 구축한 최초의 인물로서 카우츠키를 지명했다.¹⁷⁾ 이들을 정리해보면 역시 카

13) 高杉一郎 (1990). 스탈린 체험. 東京: 岩波書店, 267-282.

14) 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 235-265.

15) 丸山敬一 (1990).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자결권. 東京: 信山社, 204. 丸山敬一 (2003). 민족자결권의意義と限界. 東京: 有信堂高文社, 3.

16) 相田愼一 (1993). 카우츠키 연구. 東京: 昭和堂, 408.

17) 田中克彦 (2001). 카울·카우츠키의 국가語 言語からみた民族と国家. 東京: 岩波書店, 117.

우츠키가 민족 이론을 제시하고 레너와 바우어가 이를 수용·비판하면서 민족 이론이 개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족 이론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일컬어지는 카우츠키도 가이드 해머(guido hammer)와의 논쟁 속에서 민족 이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¹⁸⁾

그렇다면 해머,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의 민족 이론은 실질적으로 어떤 연결성이 존재했을까. 바우어의 저서 『민족 문제와 사회민주주의』가 민족 개념을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대저(大著)’¹⁹⁾로 평가받으면서 마치 바우어가 최초의 민족 연구자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바우어는 레너의 민족 이론을 계승한 것이다.²⁰⁾ 그리고 바우어의 저서는 레너와 부르노(Brno)강령의 절충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르노 강령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카우츠키의 민족론이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민족 문제에 관한 선구자로서 카우츠키가 있었고 레너와 오토 바우어의 등장이 있었다.²¹⁾ 그런데 민족 문제에 대한 바우어의 입장은 카우츠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족의 본질을 둘러싼 논점, 특히 민족의 개념과 민족의 장래, 즉 민족문화의 주장인가, 국제문화의 주장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바우어와 카우츠키가 대립했다.²²⁾

18) 相田慎一 (2002). 言語としての民族 東京: 御茶の水書房, 47.

19) 카를·카우츠키著. 丸山徹一訳 (1999). 民族性と国際性. 中京法学 34(1・2), 中京大学法学会, 92.

20) 카를·렌너著. 太田仁樹訳 (2000). 国家と民族.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32卷2号, 岡山大学経済学会, 357-380. 上条勇 (2003). オットー・パウアーと民族問題—O・パウアー『民族問題と社会民主主義』にかんする一研究. 金沢大学経済学部論集 23卷2号, 金沢大学経済学部, 174.

21) 上条勇 (1994). 民族と民族問題の社会思想史. 東京: 粹出版社, 21.

22) 相田慎一 (2002). 言語としての民族 東京: 御茶の水書房, 69-70. 上条勇(1994), 65. 물론 카우츠키가 제기한 민족연방제의 기본이념은 1899년 9월에 채택된 부르노 강령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카우츠키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민족연방제로 제시되었다. 즉 카우츠키는 입법의 중앙집권화를 기본으로 하고 행정의 지방분권화만을 담당하는 의미로서 ‘지방자치=민족자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부르노 민족강령은 민족적으로 구획된 자치적 지역을 설치하고 입법과 행정도 ‘보통, 평등,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민족의회에 의해 시행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즉 부르노 강령은 행정과 입법의 민족자치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카우츠키의 구상에 비해 훨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민족지역의 연방을 채택했다.

그리고 레너가 민족정책 중에서도 법률상 민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바우어는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민족의 과거·현재·미래’ 혹은 ‘민족정책의 모습’을 논하는 점에 차이점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바우어 쪽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입장을 견지하면서 더 넓고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고 평가받았다.²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탈린의 민족 이론이 출현하여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와 연동되고 있었다. 스탈린은 1912년부터 이듬해 1913년까지 빈(Vienna)에 체재하며 카우츠키와 바우어의 민족 문제에 관한 논쟁을 학습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을 집필한 것²⁴⁾이다. 이를 두고 마루야마 게이치는 ‘스탈린의 민족 개념은 결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바우어와 카우츠키의 기계적인 절충을 넘는 것에 불과’²⁵⁾하다며 혹평했다. 그리고 스탈린이 레닌의 영향을 받았다고 논하기도 하는데 레닌이 카우츠키를 ‘배교자’로 비판하는 것과는 반대로 레닌은 카우츠키로부터 많은 이론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이어진 영향관계도 존재하지만 스탈린은 카우츠키로부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²⁶⁾이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면 흐름상 혁신적인 내용이 드러난다.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 레닌, 스탈린의 논리에서 민족의 강조는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입장과는 대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 극단적인 것은 민족주의자의 입장이었다.²⁷⁾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마르크스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생겨난 ‘마르크스주의’로 여

23) 太田仁樹(2019). 카를·렌너의 屬人的民族的自治論と二元的連邦國家構想. 岡山大学經濟学会雑誌 50卷3号, 岡山大学經濟学会, 32. 太田仁樹(2003). 오토·바우어-『民族問題と社会民主主義』의論理. 岡山大学經濟学会雑誌 35卷3号, 岡山大学經濟学会, 31.

24) 카를·카우츠키著, 丸山徹一訳(1999). 民族性と國際性. 中京法學 第34卷第1·2号, 中京大学法学会, 92.

25) 丸山徹一(1989). 마르크스主義と民族自決權. 東京: 信山社, 203.

26) ミシェル·레비(Michel Lowy)著, 丸山徹一訳(1985). 마르크스主義者と民族問題. 中京法學 第20卷第2号, 中京大学法学会, 28-53.

27) 太田仁樹(2003). 32.

겨진다. 카우츠키 이후 레너, 바우어 등의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민족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며²⁸⁾ 이는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프로세스 자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의 민족주의 이론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민족본질론(민족의 정의)’을 전개한 부분이고, 둘째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당대에 당면한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민족정책론이다.²⁹⁾ 간단하게 말하면 민족정책론이나 민족 개념의 정식화나라는 양방향이었다. 이러한 두 갈래의 민족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자의 민족 문제를 고찰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민족 개념의 정립과 내셔널리즘으로 이어지는 민족주의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³⁰⁾ 마루야마 게이치는 후자 쪽, 즉 민족정책론을 비교 검토하는데 충실했는데, 필자는 정책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 개념의 정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민족 개념 형성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민족 개념의 경위(境位)와 전회

1. 카우츠키의 민족 개념의 변전과 편재성의 경합

카우츠키는 ‘민족(nation)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민족 개념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초기 카우츠키는 ‘민족’과 ‘인종’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상호 호환가능한 용어라고 보았다. 초기 카우츠키에 의하면 ‘통례적으로 국민(nation), 민족(nationalität), 인민(volk)이라는 세 개의 용어는 이 중 어느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며 국민, 민족, 인민이

28) 相田慎一 (1997). 81.

29) 丸山敬一 (2003). 3-5.

30) 스타린著. 平沢三郎等訳 (1953). 마르크스主義と民族問題 他十篇 国民文庫, 第203. 東京: 国民文庫社. 1-220.

라는 용어는 호환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1918년의 논문에서는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말하자면 카우츠키에게서 국민, 민족, 인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인데, 결정적으로 카우츠키는 언어로서의 민족론을 ‘민족-언어공동체’로 정식화하고, 1904년 「오스트리아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그 논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첫 기점이 된 ‘언어공동체로서의 민족론’은 1887년의 「근대의 민족」에서였다. 그 과정에서 카우츠키가 영향을 받은 것은 구이드 해머의 논문 「근대 민족의 해체(近代民族の解体)」였다.³¹⁾

아이다 신이치(相田慎一)는 독일어 원문을 해독하며 해머의 논리를 잘 제시했다. 아이다의 분석에 따르면 해머는 ‘민족 니힐리즘’이 성행하던 시기의 인물이었는 데, 해머 역시 ‘전제된 민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상투적인 틀에 박힌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민족 개념을 논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민족성이라는 것은 본래 미개의 종족에게서 나타나는 ‘종족적 동일성’에서 출발했다고 보았다.³²⁾ 해머는 종족적 동속성(同屬性)이 민족적인 것으로 변용된 것으로 보고, 근대적 민족 이데올로기는 과거 종족적인 세계에서 동속성으로 존재하던 민족성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민족 개념은 ‘인위적인 이데올로기’, 즉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르주아의 민족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다. 해머는 종족적 민족론이 변형되어 근대적 민족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부르주아의 민족 이데올로기라며 비판했다. 부르주아의 민족 이데올로기는 실제적이지 않는 ‘민족 용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머는 민족에 구애받지 않는 ‘민족의 해체’를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제화에서 찾았다. 민족은 과거 종족적 개념으로서

31) 相田慎一 (2002). 言語としての民族 東京: 御茶の水書房, 110.

32) 相田慎一 (2002). 47. 우리들이 미개의 민족 단계에 있는 유목민 내지 종족을 고찰한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종족 내의 인간들 사이에 하나의 강력한 민족적 연대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종족적 동속성(同屬性)과 연결된 종족적 동일성이라는 전형성(典型性)이다. 체격, 신장 그리고 용모는 모두 공통이다. (중략) 언어도 공통이고 일(work, 仕事)도 공통이다. 낮은 교양 수준은 원래부터 정신적 소질, 견해 그리고 민족적 성격(volkskarakter)도 공통이다. 그 결과 종교, 생활 습관 그리고 윤리도 모든 종족 동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종족의 모든 개인에게 전형적인 것 즉 민족적(national)인 것이다.

의 민족이 아니라, 근대 부르주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해체시켜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해머는 국제적인 새로운 민족을 주장하기 위해 ‘민족의 형성과 언어’를 가져왔다. 즉 해머는 유일하게 언어만이 민족(volk)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하는 요소라며 언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즉 언어가 어느 한 민족을 연대시키거나 반대로 타민족과 구별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언어는 부정적 의미에서 연대와 구별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즉 해머는 부르주아의 민족 이론을 해체하기 위해 언어가 만들어낸 연대나 구별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이 논고를 참조하면서 카우츠키는 「근대의 민족」을 집필한다. 이 논고를 시작으로 카우츠키는 민족 이론을 형성해간다. 카우츠키는 ‘민족적이라는 말도 많은 기만(欺瞞)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논한 해머의 말에 동의했지만, 민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카우츠키는 해머의 주장처럼 모든 민족이 경제발전, 즉 자본주의적 상품교역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시대라는 세계사적 흐름의 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논했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해머가 주장한 근대적 민족 이데올로기가 부르주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시민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민족은 근대 시민층과 근대 민족이 동일한 기반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근대적 민족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역할은 소수의 부르주아였다고 보는 해머와, 민족을 시민이 담당하는 것으로 대응시킨 카우츠키는 대립적이었다.³³⁾

해머의 입장에서는 ‘민족=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는 입장이고, 카우츠키는 물론 많은 부분을 부르주아가 담당했지만 ‘민족=시민이데올로기’라는 시각으로 각각 대립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발전에 의해 민족 개념이 역사화된다는 시점은 공통적이었다. 이 공통적인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카우츠키는 ‘근대 시민층과 근대 민족’이란 동일한 기반에서 생겨났고 발

33) 相田慎一 (2002). 50.

전해 온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다시 카우츠키의 민족 이론으로 치환되는데, 카우츠키는 민족이나 근대의 민족 이데올로기가 미개 단계에 존재하는 종족적 동일성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영도 아니며 자본주의 발전에 근거를 둔 근대의 ‘역사적 소산’으로 수렴시켜간다.

그리하여 결국 카우츠키는 프롤레타리아도 민족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즉 ‘프롤레타리아는 민족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카우츠키는 프롤레타리아가 민족적이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카우츠키는 해머의 ‘민족=부르주아의 소유물=민족의 대표’라는 정식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도 민족으로서 ‘가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근대 민족의 논리가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민족과는 달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카우츠키가 주장한 것은 ‘국제주의’였고 민족 문제를 새로운 틀로 바라보기 위한 대응으로서 사각하게 되었다. 물론 카우츠키는 민족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국제주의가 아니라 민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자유롭고 우호적인 협동을 의미하는 입장이었다.³⁴⁾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카우츠키가 ‘프롤레타리아도 민족’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부분으로, 프롤레타리아의 민족화와 함께 민족 차지와 국제주의의 양립론을 전개하게 된다. 프롤레타리아가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노동자는 조국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프롤레타리아가 국민적 계급으로서 상승하고, 자신을 국민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즉 ‘국민=부르주아’의 논리가 ‘국민=부르주아’로 집중시켜 모든 지방까지 동원하여 ‘하나의 국민’으로 삼고 중앙정부의 법률 속에서 국민적 계급을 통일하는 논리가 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카우츠키의 논리도 민족의 정치적 이해에 휘말려 민족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일 위험성이 존재했다. 우에무라 구니히코(植村邦彦)가 논하듯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은 이러한 국민이 아니라 부르주아와 투쟁하면서 어쩔

34) 相田慎一 (2002). 37.

수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민으로, 프롤레타리아가 국민적 이해를 대리하는 표상의 의미에서 자신들을 국민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표상적 의미였지 국민이라는 고유의 언어, 문화, 역사, 전통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를 지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국민적이라는 형용사는 민족적(volkstümlich)인 것³⁵⁾으로 사용되었다.

카우츠키가 프롤레타리아도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마르크스가 논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 중 후자 쪽일 것이다. 카우츠키는 민족을 근대적 소산이라고 보면서 프롤레타리아가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국제적 민족화였다. 카우츠키는 민족을 근대의 소산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차이성을 만든 민족 개념을 다시 새로운 '민족' 개념으로서 국제적으로 형성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카우츠키의 민족 이론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엥겔스의 『반두링론』의 영향으로 카우츠키가 '마르크스주의자'로 전환하게 된다. 카우츠키는 『에어푸르트 강령 해설』을 집필했는데 이 저서에 나타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반두링론』과 유사했다. 엥겔스는 『반두링론』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의 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동자 계급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지만 영국의 사례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침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비(非)프롤레타리아적, 즉 부르주아적'인 노동자 귀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카우츠키는 이 논리, 즉 노동자 계급이 혁명의 주체라는 규범을 계승하면서 이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었다. 카우츠키는 수공업에 일하는 노동자와 대공업의 노동자도 프롤레타리아로서 감정적으로 일체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농업노동자와 농민도 노동자의 계급이라고 지적하고 프롤레타리아 개념을 확장시켰다.³⁶⁾ 『반두링론』을 읽어보면 듀링이 현실세계에는 '모순=불합리'가

35) 植村邦彦 (2001). マルクスを読む. 東京: 青土社, 127-133.

36) 太田仁樹 (2019). 変革主体論から見たマルクスの革命論とマルクス主義の革命論—発展それとも歪曲.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51巻1号, 岡山大学経済学会, 1-2.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본질적 차이의 출발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곧 사물들을 정지나 분리상태로 간주하는 논리로 운동, 변화, 생존, 상호작용을 소거시켜버렸다. 이 두 세계를 왕복하는 다리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듀링이었다.³⁷⁾ 카우츠키는 본질주의적인 듀링에 대해 안티적인 엥겔스의 논리를 추종했음을 알 수 있다.

카우츠키는 1918년 「민족(民族, Nationalität), 국민(國民, Nation), 인민(人民, Volk)」이라는 논문에서 민족, 국민, 인민 개념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저서 중 1927년 『유물사관』에서 민족을 ‘운명공동체에서 잉태된 형질공동체’라고 주장한 바우어의 민족 이론과의 비판·반비판을 통해 정리되어간다.³⁸⁾ 카우츠키는 ‘국민’과 ‘민족’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어가 『민족 문제와 사회민주주의』에서 국민과 민족에 대해 상세하게 구별하는 논리를 제시한 것에 대한 평가였지 그 내용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다. 카우츠키는 언어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공동체 쪽보다 형질공동체에 주안점을 둔 바우어를 비판했다.

바우어는 민족을 운명공동체에서 성장하는 성격공동체로 정의했다. 바우어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족을 인식하는데 기축을 이루는 것은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한 오타 요시키(太田仁樹)는 바우어가 ‘민족은 자연공동체, 문화공동체, 교통공동체, 언어공동체라는 형태의 성격공동체로 나타난 것’, 특히 이 성격공동체는 운명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이었다고 정리했다.³⁹⁾ 여기서 주목해야

37) 엥겔스著 栗田賢三訳 (1952). 反ヂューリング論 (上卷). 東京: 岩波書店, 196-197. 202. Engels, F. (1976). Herr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김민석 역 (2010). 반 듀링론. 서울: 중원문화, 128-129. 132.

38) 相田慎一 (2002). 33.

39) 太田仁樹 (2003). 25-26. 바우어에 의하면 민족은 인류사의 발전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공동체로 나타난다. 자연공동체와 문화공동체와의 구별은 시계열적인 성격변화를 의미하

하는 것은 바우어가 민족 규정을 이어갈 때 언어에 의한 민족 규정론을 비판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어를 중심에 두고 자본주의 발전과 민족 관계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으로 고찰하는 카우츠키를 비판한 점이다. 즉 바우어는 언어공동체 하나만으로는 민족 개념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카우츠키는 언어공동체만으로 민족을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바우어의 비판을 수용한다. 카우츠키는 언어를 민족의 유일한 규정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민족을 사회공동체로 만드는 요소를 논한다. 우선 혈연을 예로 들었다. 혈연은 “인종(rasse)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민족과의 동일시였다. 그러나 근대적 민족의 형성은 이 관점을 벗어난 것으로 인구의 증가나 이주, 정주, 다른 종족과의 교류 속에서 사회공동체 공통의 혈연의 힘을 잃게 된다. 그것을 대신하여 인간사회를 뭉치게 하는 새로운 연대가 등장한다. 인간이 정주함에 따라 공통의 지역성이 중요해지는 원인이 된 것”⁴⁰⁾이라고 보았다. 카우츠키는 근대적 민족 형성에 지역 개념 또한 중요한 개념으로 상정했다. 이처럼 카우츠키는 혈연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된 인종과 민족의 연결성·분리성을 논하고 다시 지역공동체의 문제도 상정한다.

바우어는 카우츠키에게 답을 하듯 1924년 개정판 서문에 언어공동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했다. 바우어 역시 언어를 민족 해석에서 제외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논하며 이 둘을 절충했다. 카우츠키 역시 근대의 민족 형성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형질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은 국민이나 민족의 정치, 경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라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공동체론에 ‘형질공동체’를 추가했다. 이후 카우츠키는 『유물사관』에서도 기본적으로

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자연적 측면에서 보면 자연공동체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임을 의미한다. 민족은 언어공동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성격공동체로서의 민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역사적 프로세스이다. 민족적 성격은 역사의 침전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민족이 체험하는 모든 새로운 사건과 함께 변화한다. 민족적 성격은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사건처럼 변하기 쉽다. 세계의 사건들의 정중앙에 놓여 민족적 성격은 이미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속에 있다고 논했다.

40) 上条勇 (1994). 68.

는 ‘Nationalität’를 민족으로, ‘nation’을 국민으로 그리고 ‘volk’를 인민으로 표기하며 그 표기법 및 의미와 내용에 차이를 두었다. 즉 카우츠키는 인민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를 이루는 ‘민족=언어공동체’의 입장을 바우어의 형질공동체와 접목시켜 설명해냈다. 카우츠키의 인식에서 민족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메르크말은 언어의 공통성과 함께 개인 간의 이해와 역사적 공통성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카우츠키의 민족 이론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상호 간의 이해와 역사의 공통성을 중시한 바우어의 ‘민족=운명공동체론’과도 접속하게 되었다.⁴¹⁾ 또한 카우츠키는 언어로 매개되는 민족의 전통이 민족적 결합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카우츠키는 언어란 민족 간에 교통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에 의한 민족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매개된 문화의 교류와 발생에 주목하게 된다. 언어는 민족성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⁴²⁾ 다시 말해서 바우어가 주장하는 ‘민족=운명공동체론’과도 접속시킨 카우츠키이지만, 민족적 형질이나 민족문화 등의 공통성을 중시하는 바우어의 민족 개념은 민족을 사회적 조직 일반에 매몰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카우츠키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즉 카우츠키가 인정한 것은 공통의 운명, 공통의 문화, 공통의 형질이라는 지표가 다종다양한 여러 요인의 작용에 의한 역사적 소산이며 이런 것들이 민족에 부착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 지표는 민족을 인간집단으로부터 엄밀하게 구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카우츠키는 레너나 바우어의 민족문화공동체 내지 형질공동체설과 거리를 두었다.⁴³⁾ 그러나 레너과 바우어 사이에서도 차이성이 존재했다. 레너는 민족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민족이 문화공동체라는 것에는 반대했다.

카우츠키는 민족 규정을 위해 민족문화는 ‘하나의 요인’으로 인정했지만

41) 相田慎一 (2002). 40.

42) 上条勇 (1994). 68.

43) 相田慎一 (1993). カウツキー研究 東京: 昭和堂, 363.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며 낮게 평가했다. 카우츠키는 하나의 민족문화에 그치는 논리가 아니라, 역사의 진전에 따라 민족문화가 서로 섞이고 혼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민족문화만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국제문화로 치환된다고 이해했다. 즉 민족문화는 특수한 것으로 보편적인 국제문화에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고 이해했다.⁴⁴⁾ 그리고 카우츠키는 하나의 민족을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구별하고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특유한 것에 대해 논한다. 그것은 사회적 입장이나 계급의 상위(相違)를 넘는 민족적 일체감으로서 표출된 공속(共屬) 감정인데 카우츠키는 그것을 민족 감정이라고 보았다. 이 민족감정이야말로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특유한 것으로, 카우츠키에 의하면 민족 감정을 낳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교통의 불가결한 수단인 언어의 공통성, 즉 민족어의 공유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언어의 공통성에서 생기는 민족 감정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언어는 인간의 사회적 협동을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들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의사 소통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 사회적 교통의 외부에 서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우리들은 형질이나 사회적 입장이 어떠한 우리들의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일체감을 느낀다. (중략) 이처럼 사회생활에서 담당하는 언어의 커다란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은 민족 감정이 갖는 힘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⁴⁵⁾

카우츠키는 언어를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교통의 불가결한 도구로서 생겨난 것, 언어는 도구 이상의 것으로 간주했다. 언어의 공통성은 형질적 입장을 초월한 사회적 일체감을 낳기 때문이다. 민족이 공통의 언어, 즉 민족어에 의해 사회적 교통을 이루는 한, 필연적으로 민족적 일체감으로서 민족 감정이 ‘각성’된다고 논했다. 즉 사회적 입장이나 계급의 상위를 초월한 민족적 일체

44) 上条勇 (1997). 170.

45) 相田慎一 (1993). 363.

감으로서 민족 감정이 민족을 다른 사회적 조직으로부터 구별하고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민족 감정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요인인 민족어라는 언어의 공통성이다. 그리고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의 발전, 근대적 민족에서 공통된 지역의 역할에 주목했다. 공통된 지역과 언어의 통일 문제를 논하고 더 나아가 근대국가로서 민족국가의 형성을 설명한다.⁴⁶⁾ 카우츠키는 프롤레타리아가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민족 개념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형성된 것이면서 언어와 지역의 문제를 연결해서 국가에 일원이 되는 민족국가의 논리를 통합하고 있었다.

카우츠키는 민족어와 국가어를 구분했다. ‘민족어’는 공존적이고 경합적인 것이고 ‘국가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즉 다민족 혹은 복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어느 민족어가 국가어의 지위를 획득하는가라는 문제는 계급의 구별을 따지지 않고 민족의 초점이 된다는 점을 고찰한다. 카우츠키는 ‘모든 계급’을 통해 ‘공통의 이해’를 느낄 수 있음을 논한다. 즉 언어는 프롤레타리아에게도 자본가에게도 자신의 모어의 통용 범위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국가어는 확대된 통일시장을 찾는 근대 자본주의의 부르주아적인 요구로 보았다. 언어가 갖는 전체성과 부분성에 대해 조정(措定)하고자 했다. 카우츠키는 민족을 규정하는 고유의 언어, 즉 모어 강조나 민족적 특질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본래 부르주아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음⁴⁷⁾을 지적하며 프롤레타리아가 시민이고, 카우츠키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공동체는 부르주아의 방언으로서 배제의 타자적 집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물론 민족의 이익을 계급적 이익에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레닌의 논리와는 다르게 활용되지만, 카우츠키의 민족과 언어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레닌과 스탈린에게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그

46) 上条勇 (1994). 68.

47) 田中克彦 (2001). *カール・カウツキーの国家語 言語からみた民族と国家*. 東京: 岩波書店, 123.

이전에 그 토대는 카우츠키가 해머, 바우어와의 비판과 조정 속에서 창출해낸 민족 개념이 보완되고 특화되는 형태로 재편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즉 언어공동체를 민족이라고 본 것도 실은 문화 형성의 기초에 언어가 작동했다는 점, 언어를 중심에 두고 민족을 고려하는 사상이나 언어관은 독일의 ‘시대적 사상적 계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⁴⁸⁾ 민족성을 언어에 의해 설명하는 카우츠키가 이러한 시대적 사상의 ‘전통’ 속에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카를 레너와 오토 바우어의 민족 이론과 ‘언어’

레너는 민족(nation) 개념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민족(nation)을 정치학 개념의 분야에서 고찰해야만 하는 ‘국가론’이라고 보았다. 물론 레너는 민족 개념을 불확실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그 변천과정을 통해 국가론을 논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이며 공통 이해의 감정이나 공동 행동의 결정까지 나아가지 않는 ‘언어-문화공동체’가 민족(volk)이고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족(nation)은 아니라고 보았다. 제1차 혁명까지는 러시아 민족과 우크라이나 민족(volk)이 존재했는데, 처음으로 민족 의식이 러시아의 많은 민족(volker)에게서 나타났으며 제2차 혁명에서 우크라이나 민족(volk)도 자결권을 갖는 유럽 제민족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중간단계’ 이후에 근대 민족(nation)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상 부정확함이 존재한다.⁴⁹⁾

레너는 민족에 대한 의식이 자결권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통해 인식된다고

48) 田中克彦 (2001). 138-139. 카우츠키의 언어공동체가 현대의 독일언어학에서 기초 개념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이론의 형성자(形成子)도 되었다. 가벨렌츠(G. v. Gabelentz)에게도 언어와 민족의 관계에 대해 카우츠키가 생각한 것과 동일한 테마가 이 용어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49) 太田仁樹 (2002). 카를·레너 『諸民族の自決権』(1).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34卷2号, 岡山大学経済学会, 68.

보고 볼크가 민족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대한 불활실성을 논한다. 이 불활실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민족이 들어오게 되는데 레너는 민족 문제를 ‘공법에서 언어 통용의 문제’로 환원시켰다. 즉 모든 ‘언어의 동권(同權)’이라는 시각에서 민족원리, 통일국가의 이념, 동권과 자치의 요구가 기초에 있는 물질적 이익을 통합시킴과 동시에 은폐되는 표치(標識)⁵⁰⁾라고 보았다. 즉 레너의 입장에서는 언어가 민족들간에 ‘동일한 권리’를 갖는 평등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민족원리나 통일국가의 이념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들이 무엇을 은폐하는가, 즉 차이의 통합을 위해 은폐하는 표식들로 간주하고 그 원리들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레너는 ‘언어’를 모든 민족에게 평등한 권리를 갖는 ‘동권’이라는 논리라고 보면서 이 언어의 동권이 갖는 의미가 민족의 원리나 국가의 이념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차이를 소거시키는 은폐의 표식이라고 보았다. 즉 레너는 언어의 동권 속에 감춰진 통합성과 은폐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레너는 민족을 ‘사상생활과 감정생활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사상과 감정은 표현의 전달, 즉 민족어에 의해서만 공통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민족은 생활공동체로서 사상과 감정의 전달이 핵심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민족어라는 ‘공통의 언어’였다. 따라서 언어가 내적 감정을 전달하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언어·민족어·공통어의 의미를 확인해 주었다. 언어의 중요성을 중시한 것, 즉 개인의 의지 중요, 영토와 관계없음을 논하면서 민족은 생활공동체이고 공통어가 사상과 감정의 전달 핵심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레너에 의하면 민족은 개인적인 것이며 지역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속인주의’에 중점을 두었다.

바우어 역시 민족(nation)은 근대적 개념으로 민족(volk)과 다르다고 보았다. 일본어와 한국어로는 민족이라는 동일한 말로 표기되지만 민족을

50) 카를·렌너著, 太田仁樹(2000). 国家と民族(上).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32卷2号, 岡山大学経済学会, 177.

'nation'과 'volk'로 구분했다. 즉 '제민족(volk) 위에 보편적인 지배권을 유지 하면서 내세우려는 교회와 로마 황제에 저항하며 중세적인 보편적 이념에 반대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서구 전체에 퍼지고 민족 전체의 기체(肢體)를 매우 다수의 중소 여러 국가로 분열하여 무수한 소국가의 지배권력에 대항했다. 교회적 일황제적 보편국기와 군주의 분립국에 대한 투쟁에서 비로소 근대적 민족 감정이 성숙하고 근대적 민족(nation)이 생성된 것'⁵¹⁾이라고 논했다. 바우어 역시 민족 논리는 볼크(volk)에서 시작해서 그 볼크(volk)에 내재된 중세적 세계관의 모순과 투쟁하며 보편적 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민족 감정이 형성되면서 민족(nation)이 개념화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오타 요시키는 이 운명공동체에서 성장하는 성격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설명하는 바우어의 방식에 민족 형성의 역사적 프로세스를 유물사관에 빗대어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바우어가 민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각 시기 민족의 모습을 특징짓기 위해 가장 중시한 것은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이었다. 바우어에 의하면 민족은 통일에서 분열을 거쳐 다시 통일로 나아가고 문화의 유지에서 상실(喪失)을 거쳐 재획득으로 향한다고 보았다. 이 재구성에 의해 근대의 민족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탄생하는 것으로⁵²⁾ 민족, 즉 근대 시민국가가 균질하게 완성된 국가로서 민족국가를 연결시켰다.

바우어는 속인주의적 문화, 즉 민족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민족문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제화의 입장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우어와는 대립적이었다. 바우어는 국제문화도 민족문화의 공통항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특수 민족문화 아래에서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바우어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문화의 국제화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민족문화의 부정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민족은 타문화를 자신의 입장에서 변형하여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민족문화의 소멸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을 국제문화라고 보았다. 바우어의 입장에서 '민족문화의 요구'는 '노동자 계급

51) 太田仁樹 (2002). 63.

52) 太田仁樹 (2003). 25-26.

의 요구'라는 입장에서 부르주아의 민족 이론과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카우츠키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시민운동으로서 민족의 개념화라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논리로서 바우어가 민족문화를 매개로 인류 전체의 문화적 유산을 향유하지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바우어에 의하면 노동자 계급의 생활 수준의 향상은 그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전제가 되었고, 민족적 문화요구를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계급의 진화적 민족정책이라고 본 것이다.⁵³⁾

이런 까닭으로 바우어는 민족국가를 근대국가의 전형적 형태라고 간주하는 것에 반대했고 노동자 계급의 문화 요구에 중점을 두었다. 노동자 계급의 민족국가 형성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간과하지 않았다. 즉 부르주아지가 공동체로서 민족을 발견했다고 보고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를 요구하는 민족성 원리가 내걸리고 이것이 역사의 커다란 규정 요인이 되었다고 바우어는 보았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민족적인 문화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지배적 소유자 계급만이 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횡령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인민의 노동의 소산인 민족문화를 전인민의 소유물로 하고, 그것에 의해 모든 동포를 민족적인 문화공동체와 연결시킴으로써 비로소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⁵⁴⁾이기도 했다.

바우어도 레너와 마찬가지로 민족 문제를 문화적, 개인적 측면에서 받아들여 했다. 바우어는 민족이란 본래 역사적인 개념으로 공통의 전통에 근거한 여러 가지 행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음을 요구한다. 그때 언어의 공통이라는 것은 민족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민족을 식별하는 충분한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민족의 중요한 특색은 고유의 문화와 생활양식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민족문제는 주로 문화적 자치의 문제였다. 즉 각각 민족의 거주지에서 모든 문제 특히 교육, 예술, 종교, 사회적 관습, 의례

53) 上条勇 (1997). 171.

54) 矢田俊隆 (1963). 오스트리아社会民主党と民族問題. 슬라브研究 7号, 北海道大学슬라브研究センター, 36.

등 민족적 생활양식과 관계있는 문제를 그 민족 자신의 언어와 습관에 따라 자차적으로 처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바우어는 레니처럼 문화와 정치, 경제를 극단적으로 구별하는 것에는 반대였는데, 레니의 구상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사회주의 사상 전체 속에 한층 더 깊게 고정시키려 했다.⁵⁵⁾

이처럼 레니나 바우어의 민족 개념은 ‘공통의 언어·역사·생활’을 문화라고 보고 그 틀 속에서 유전되는 특성들이라는 것과 반대로, 종족과 민족의 진화과정에서 어떤 특성들이 소거되었는가를 다루지 않으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규정했다. 민족 개념을 성립시키는데 공통의 역사, 공통의 법률, 공통의 습성들이 언어에 의해 전달되는 동시에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민족 개념의 문화적 전통을 낳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혈통이나 문화는 ‘공통의 역사’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민족적 중핵의 형질을 형성하는 도구들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III. 스탈린의 언어와 민족: 국제성이라는 배제주의

1. 언어의 특수성과 보편성=단일성/일체성의 강조

본 논고의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탈린의 민족 이론은 카우츠키, 레니, 바우어와의 논쟁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논했다.⁵⁶⁾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민족 개념이 카우츠키→레닌→바우어→스탈린이라는 계승 관계에 내재된 일면성을 극복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민족 이론에 관해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레닌과 스탈린이 카우츠키로부터 계승한 것은 ‘민족=언어공동체설’에 근거하는 ‘민족국가 형성=민족자결권론’

55) 矢田俊隆 (1963). 35-36.

56) 丸山敬一 (1989). 203.

일 뿐, 카우츠키의 ‘민족자치론’에 대해서는 전혀 계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면적 수용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⁵⁷⁾ 이러한 일면적 수용은 결국 스탈린의 민족 이론 내부 속에서 ‘총체화된 것’으로 카우츠키로부터 받아들인 것과 거부한 것, 그리고 카우츠키의 논리들을 다시 레너와 바우어가 어떻게 계승하고 다시 상호 보완되면서도 분리되어 나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스탈린의 민족 이론이 어떻게 총계(總計)화되는지를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스탈린은 민족 문제에 관해 이론을 전개하면서 레너와 바우어를 거론했다. 스탈린은 레너의 『민족 문제』에서 민족을 정의한 부분, 즉 ‘민족이란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합체’라는 부분과, ‘민족이란 서로 동떨어져 살고 있어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체’⁵⁸⁾라고 주장한 것을 인용한다. 그리고 스탈린은 바우어의 『민족 문제와 사회민주당』 속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바우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역사를 각인하는 사람들의 사회집단을 운명공동체라 불렀다. 공통의 지역은 이 사회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민족 규정과 관련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공통의 언어란 사회집단의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를 매개로 하는 수단을 이루는 한도 내에서 민족 규정에 관계한다고 보고, 이 둘은 사회집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민족 규정에 관련한다고 논했다.⁵⁹⁾ 스탈린이 활용한 것은 이러한 바우어의 ‘운명공동체’ 논리였다.

바우어가 주장하는 운명공동체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교류에서 이루어지고 이 교류에 주목해서 보면 운명공동체는 교통공동체라는 것이다. 교통공동체란 매스미디어, 교육, 거래, 교제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상호간에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 교류의 중요 수단이 바

57) 相田愼一 (1993). 410.

58) 스탈린著, 全集刊行會訳 (1953). 52.

59) 上条勇 (1994). 81.

로 언어였다. 언어는 교통공동체 더 나아가 운명공동체를 유지하고 매개하는 수단이다. 교통공동체는 공통의 언어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그 통용하는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언어의 발생과 발전을 기초짓는 것이다.⁶⁰⁾

바우어는 운명공동체가 형성되는 수단으로서 ‘교통’ 중 하나로서 언어가 그 교통공동체를 위한 매개 수단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교통공동체로서 언어가 운명공동체를 유지하고 규정한다고 본 것이다. 사실 스탈린이 주목한 것은 운명공동체라기보다는 이 교통공동체로서 언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스탈린은 언어가 계급을 넘어 어느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언어의 비계급성을 내걸었고 언어의 본질이 갖는 특징을 착취자에게도 피착취자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며 언어는 이 점에서 상부구조와는 다르다는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⁶¹⁾ 그리고 스탈린은 민족 이론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민족 이론들을 통합해간다. 스탈린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족이란 이들 모든 특징이 함께 통합된 것⁶²⁾이라고 인식했다. 스탈린이 보기에 공통의 지역과 언어는 민족을 생각할 때 토대를 구축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민족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고 보아 카우츠키와 바우어의 언어공동체 논쟁의 내용을 학습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우츠키는 바우어가 언어를 빼고 민족 이론을 개념화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바우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탈린은 카우츠키와 마찬가지로 바우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민족론을 구축한다. 스탈린은 바우어의 민족 이론의 종합적인 체계를 무시하고 민족 ‘성격’ 부분만을 떼어내어 바우어를 논파해간다. 카우츠키가 언어를 민족의 유일한 해석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은 ‘편향적인 성격’을 가진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바우어의 성격공동체, 운명공동체론을 비판했던 것처럼 바우어가 민족의 유일한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민족 성격을

60) 上条勇 (1997). 164.

61) 田中克彦 (2001). 120.

62) 스탈린 著, 全集刊行会訳 (1953). 56.

정의한 것을 스탈린이 비판한 것이다.

바우어가 민족을 정의하기 위해 활용한 ‘공통의 운동, 공통의 문화, 공통의 형질’의 요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표를 표면화하는 뒷 배경들의 작용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역사이며 ‘역사의 소산’으로 민족 개념들에 그것들이 부착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 발전 속에서 민족 개념의 형성은 반대로 다른 민족들과의 구별을 낳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개념에 부착된 역사적 요인들이 ‘혈통, 지역, 언어, 풍속, 법, 종교’였고 레니가 논한 정치로서 국가도 마찬가지였다.⁶³⁾

그런데 스탈린은 바우어가 단순하게 민족 성격에 의해서만 민족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즉 스탈린은 바우어의 민족 규정이 지역, 언어 및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치밀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반대로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의 공통성 속에 나타나는 심리상태의 공통성이라는 네 개의 요인들 전체에 나타나는 ‘생활의 역사’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민족을 규정하고자 했다. 스탈린은 바우어의 민족 성격을 심리상태의 공통성으로 바꾸어 표현하면서 민족 개념의 규정에 추가했다. 즉 스탈린은 바우어가 말하는 민족 성격의 의의를 한정적 편향에 가두고 이를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는 입장에서 심리상태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다시 자신의 정의 속에 존재하는 한정적 편향 개념으로서 바우어적인 것을 제거한다. 즉 스탈린은 바우어가 민족의 특징=민족 성격과 그 생활 조건을 서로 떼어내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성격을 동일시하는 바우어의 견지는 생활 조건의 분석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을 성격 자체로 분리해낸 것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방식이었다.

스탈린은 바우어가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생활 제조건 자체와 연결하는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민족 성격을 규정한 것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유심론자의 신비적인 자기 만족적 민족정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

63) 上条勇 (1994). 82.

하여 스탈린은 바우어의 관념론적인 민족 성격과 자신이 논하는 심리 상태의 공통성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우어와의 결별을 확정했다. 동시에 스탈린은 바우어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의 문제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기회주의적 민족 규정이며 결론이 문화적 민족자치제라고 해석했다. 스탈린은 다시 그 부분만을 러시아에 이식하려는 ‘러시아의 기회주의자’와 싸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스탈린은 민족운동의 역사적 회고를 기술하고 민족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를 설명하고 민족자결권의 내용이 국기와 민족에 따라 다르다고 논한다. 이 구성은 레닌의 『민족자결권』과 동일하다.⁶⁴⁾ 즉 스탈린은 독일의 사회주의 논리, 오스트리아의 레너와 바우어의 사회민주주의 논리를 러시아의 사회주의 논리로 변형·재창조하는 방식을 취했다.

스탈린의 눈에는 문화 공동체적 민족자치제 또한 하나의 민족 개념에 치우친 ‘편향적 특징’을 강조하는 논리이며 이 이론을 통해 문화적·민족공동체를 결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스탈린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즉 스탈린은 문화공동체라는 민족 개념을 동원하여 민족을 독립화하여 배타 정신을 강요하며 타민족 프롤레타리아와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스탈린은 민족을 개개인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역사 발전 과정의 산물로서 인간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본주의 발전 논리만으로 민족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스탈린의 입장은 이 둘을 통합하는 방식이었고 민족 개념이 부르주아의 산물도 아니고 개인 원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도 아님을 절충하는 방식이었다.

스탈린은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새롭게 자신의 민족 개념에 내재한 세계성을 창출해가기 위해 ‘노차이아’를 고안해냈다. 노차이아라는 말은 ‘nation’의 다른 발음으로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노차이아=민족’이란 “무엇보다도 하나의 공동체, 즉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인종적인 공

64) 스탈린 著, 全集刊行会訳 (1953), 215.

동체도 아니고 종족적인 공동체도 아니다. 즉 민족=노차이아는 인간의 보편적 역사로 구성된 공동체⁶⁵⁾라며 세계적 시각을 제시한다. 인종의 진화로서 민족이 되고 민족의 공동체로서 국가를 이루는 근대 자본주의 발달 단계상의 논리를 인간의 보편 공동체라는 커다란 동심원으로 그려냈다.

스탈린은 민족과 국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언어가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국가는 공통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논한다. 스탈린은 국가의 내부에는 여러 언어가 존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아 다언어의 공존을 논하는 듯했지만 일상어와 공용어라는 것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구분했다. 스탈린은 민족 공동체가 단일민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과,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다언어가 공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공용어를 통한 국민의 일상어를 존중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 모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국가어로 구성되는 국가는 배제하면서 그것이 마치 계급의 전체를 아우르는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민을 외부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바우어가 민족문화의 중시를 주장한 것과 카우츠키가 국제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리들을 절충하는 형태였다. 스탈린은 1899년의 부르노 민족 강령에서 제시된 내용, 즉 ‘우리들은 어떤 민족적인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어의 요구는 방기한다. 매개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국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논한 카우츠키의 민족과 국제성의 의의를 민족 문제의 핵심으로 받아들인 스탈린이 모방한 논리였다. 다나가 가쓰히코에 의하면 이러한 스탈린의 이론들은 ‘소비에트 건설 과정에서 엄하게 존재하는 민족과 계급 원칙의 모순의 틈에 낀 스탈린이 낳은 사회주의 다민족국가를 말하고 제민족의 문화생활의 원칙의 하나로 교묘하게 슬로건’을 창출한 것으로, 카우츠키의 국제성이라는 용어를 사회주의라는 말로 대체했다고 보았다.⁶⁶⁾ 스탈린은 국제적 문

65) 스탈린著, 全集刊行会訳 (1953), 46-47.

66) 田中克彦 (2001), 129.

화 프롤레타리아 민족 이론의 획득을 위해 민족적 의상과 국가를 활용했다.

스탈린의 민족 이론은 언어를 단순한 수단, 형식을 초월한 개인의 내면 세계 형성과 연결하여 해석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내면화된 민족 언어를 비유럽어를 모어로 삼는 스탈린이 이를 치환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것이었다. 카우츠키가 부르노 강령에서 주장한 것과, 그것과 연동하여 나타난 레너와 바우어가 만든 민족의 이론들이 경합했다. 카우츠키는 국가어를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부르노 강령 속에 넣으면서도 실은 카우츠키가 독일어의 절대적 우위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문제를 레너와 바우어가 답습했던 것이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 입장, 즉 비유럽어의 모어자가 아닌 입장에서 비유럽어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인식론적 틀 속에서 문화적 상대화라는 사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언어 국제주의'가 잉태되었고 스탈린의 민족 이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IV. 나가며

이상으로 본 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의 민족 정의론자로서 명성을 지닌 스탈린의 민족 이론이 갖는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도 민족, 종족, 내셔널리즘 개념의 경계가 애매하고 용어의 공유없이 남발되는 이유로서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 그리고 스탈린이 내린 민족 개념에서 유래된 것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본 글에서는 카우츠키의 민족 이론이 해머와의 논쟁 속에서 잉태된 것임을 밝혀내는 동시에 '민족-언어공동체' 개념이 발현되는 프로세스를 밝혀냈다. 해머는 당대의 민족 개념에 대해 니힐리즘적 시각이 존재하던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그것에 몰입되는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 개념이 갖는 이중성에 대해 논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족 개념이 부르주아적 근대 개념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민족 개념을 만든 언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 점이다. 해

머는 국제적 연대를 위해 민족 개념의 강화가 낳은 비연대를 극복하려는 입장에 있었다. 이에 대해 카우츠키는 민족을 오히려 프롤레타리아가 만들어온 근대 개념으로서 시민적 근대주의라고 보고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언어공동체라고 논했다. 그리하여 카우츠키는 프롤레타리아의 국제화 및 민족 개념의 재생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카우츠키의 입장은 부르노 강령에 반영되었는데 오스트리아의 레너와 바우어가 이 논리들에 비판적이거나 동조하면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민족 개념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것, 영토와 언어의 관련성 등을 추가하면서 운명공동체로서 민족 개념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속인주의에 중점을 두고 민족문화의 중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화에 대해 한계성을 갖는 문제들에 상호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하면서 종족이 민족으로 그리고 국가로 변용되어가는 프로세스 속에서 민족으로 발전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중간성을 검토하면서 민족이 부르주아적 개념으로 연결되는지,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인지 관념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것은 민족 개념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도 민족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화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으며 국제화라는 프롤레타리아 연대의 세계주의가 정당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스탈린은 카우츠키와 레너, 바우어의 논쟁을 참고하면서 민족 개념을 총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 개념은 여전히 상상의 개념 또는 창조된 개념이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게르너나 앤더슨의 논리들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통해 민족 개념의 상상과 창조성이 갖는 의미를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 스탈린, 민족, 심리공동체, 다언어

[참고문헌]

- 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 235-265.
- 박찬승 (2016).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화.
- 이병태 (2021). 라메트리의 유물론, 그리고 그 너머, 인문과학 제122집, 165-198.
- 장문석 (2011).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 Anderson, B.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 Anderson, B.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白石さや・白石隆訳 (1998). 増補想像の共同体—ナショナリティの起源と流行. 東京: NTT出版.
- Engels, F. (1976). 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김민석 역 (2010). 만두링론. 서울: 중원문화.
- Hobsbawm, E. J. (201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역 (2019).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비.
- ア-ネスト・ゲルナー. 加藤節監訳 (2020). 民族とナショナリズム. 東京: 岩波書店.
- エンゲルス著. 栗田賢三訳 (1952). 反ヂューリング論 (上巻). 東京: 岩波書店.
- カール・カウツキー著. 丸山敬一訳 (1999). 民族性と国際性. 中京法学 34巻1・2号, 中京大学法学会., 91-134.
- カール・レンナー著. 太田仁樹訳 (2001). 民族の生い立ち.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32巻4号, 岡山大学経済学会, 727-747.
- カール・レンナー著. 太田仁樹訳 (2000). 国家と民族 (上).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32巻2号, 岡山大学経済学会. 357-380.
- スターリン著. 全集刊行会訳 (1953). マルクス主義と民族問題. 東京: 大月書店.
- スターリン著. 平沢三郎等訳 (1953). マルクス主義と民族問題-他十篇国民文庫, 第203. 東京: 国民文庫社.
- ミシェル・レヴィ(Lowy Michael)著. 丸山敬一訳 (1985). マルクス主義者と民族問題. 中京法学 第20巻第2号, 中京大学法学会, 28-53.
- 高島善哉 (1970). 民族と階級. 東京: 現代評論社.
- 高杉一郎 (1990). 스타린 체험. 東京: 岩波書店.
- 菊地昌典 (1966). 歴史としてのスターリン時代. 東京: 盛田書店.

- 大野節夫(1976). 帝国主義と民族抑圧ーレーニンの民族問題論. 経済学論叢 24(1・2・3), 同志社大学経済学会. 44-80.
- 相田慎一(1993). カウツキー研究. 東京: 昭和堂.
- 相田慎一(1997). カウツキー. 民族問題.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 相田慎一(2002). 言語としての民族. 東京: 御茶の水書房.
- 上条勇(1994). 民族と民族問題の社会思想史. 東京: 梓出版社.
- 上条勇(1997). バウアー. 民族問題.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 矢田俊隆(1963). オーストリア社会民主党と民族問題. スラヴ研究 7号, 北海道大学スラヴ研究センター. 15-56.
- 植村邦彦(2001). マルクスを読む. 東京: 青土社.
- 塩川伸明(2008). 民族とネイションー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難問. 東京: 岩波新書.
- 塩川伸明(2008). 民族とネイション: 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難問. 송석원 역 (2015). 민족과 네이션. 서울: 이담.
- 田中克彦(2000). ソビエト・エトノス科学論-その動機と展開. 一橋大学博士論文. 大学院社会学研究科・社会学部. 1-170.
- 田中克彦(2001). カール・カウツキーの国家語. 言語からみた民族と国家. 東京: 岩波書店.
- 中沢精次郎(1962). スターリンによるレーニン主義的民族理論の継承について. 法学研究 35巻11号,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55-69.
- 倉田稔(1997). レンナー. 民族問題.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 村井淳(1994). スターリンの民族問題についての思想と政策. ロシア・東欧学会年報 23, ロシア・東欧学会. 76-84.
- 村井淳(1993). レーニンの民族問題についての思想と現状. ロシア・東欧学会年報 22, ロシア・東欧学会. 68-75.
- 太田仁樹(2019). カール・レンナーの属人的民族的自治論と二元的連邦国家構想.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50巻3号, 岡山大学経済学会. 25-38.
- 太田仁樹(2019). 変革主体論から見たマルクスの革命論とマルクス主義の革命論ー発展それとも歪曲.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51巻1号, 岡山大学経済学会. 1-18.
- 太田仁樹(2003). オット・バウアー-『民族問題と社会民主主義』の論理.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35巻3号, 岡山大学経済学会. 195-213.
- 太田仁樹(2004). カール・レンナーの民族的自治論-『諸民族の自決権』を中心に. 济学史学会年報 46巻46号, 経済学史学会. 17-30.
- 丸山敬一(1989). マルクス主義と民族自決権. 東京: 信山社.

丸山敬一(1997). 民族問題-現代のアポリア.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丸山敬一(2003). 民族自決權の意義と限界. 東京: 有信堂高文社.

[국문초록]

전후 일본에서 스탈린의 민족 이론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일본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스탈린의 민족 이론은 동유럽에서 진행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고, 민족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카우츠키, 레너, 바우어가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었다. 본문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 중 최초로 민족 이론을 제시한 카우츠키의 민족 개념 형성 과정을 검토했다. 카우츠키는 해머의 논문을 통해 민족은 근대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학습했다. 그러나 해머와 반대로 카우츠키는 민족 개념은 ‘부르주아 민족’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민족’을 중시했다. 또한 언어가 민족을 구분하게 했으며, 언어가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된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카우츠키는 민족-언어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카우츠키 이후 레너와 바우어 역시 민족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볼크(volk)에서 나치온(nation)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민족이론이 구축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레너는 민족공동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다. 바우어는 심리적 문화공동체론을 제시했고 이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로서 언어를 강조했다. 바우어는 카우츠키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고, 노동자 계급이 포함되는 공동체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화를 중시한 카우츠키와 민족문화를 중시하는 레너와 바우어의 입장은 대립적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스탈린은 레너와 바우어를 비판하면서 카우츠키를 계승하여 총체적으로 언어, 지역, 경제, 생활문화의 심리를 민족 개념으로 정의했다. 동유럽에서 발생하고 출현한 ‘민족 개념’이 확산되어 스탈린의 민족 이론이 정형화되었던 것이며, 언어 국제주의가 탈배제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논리로 재구성되었음이 드러났다.

[Abstract]

The standardization of the ‘national concept’ and the problem
of ‘multilingual = exclusivity’
-Focus on Kautsky, Renner, Bauer and Stalin-

Jun, SungKon (Hallym University)

As Stalin’s theory of the nation became widespread in postwar Japan, the theory was developed in a way of applying Stalin’s concept of the nation to Japan’s context. But the fact is that Stalin’s theory of the nation was created in the temporal context originated from Eastern Europe, and Kautsky, Renner, and Bauer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the nation. Kautsky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ce and nation through Hamer’s thesis and learned that the nation is related with the ideology of the modern bourgeoisie. Kautsky’s concept of the nation was formed when capitalism was being developed, and this concept of the nation put emphasis on the civic nation that values the proletariat, rather than the “bourgeois nation.” Based on this, Kautsky came up with the idea that a nation equals a community of language. In addition to Kautsky, Renner and Bauer also considered that a nation was built in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development. And they pointed out that the theory of the nation was established while the concept of “volk” was transformed into “nation.” However, while Renner put importance on the nation, he distanced himself from the national community. Bauer argued for the theory of cultural community including the working class, with an emphasis on citizens as the core of the nation, as Kautsky did. However, the position of Kautsky, who valued internationalization, was in confrontation with Renner and Bauer, who emphasized national culture. Stalin also explained that language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concept of the nation. While criticizing Renner and Bauer, Stalin succeeded Kautsky and defined the psychology of languages, region, economy, and living culture on the whole as the concept of the nation. As such, it was revealed that Stalin’s theory of the nation was conceived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ation” that appeared in Eastern Europe, and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ies and the theory of the nation.

【Keywords】 Kautsky, Renner, Bauer, Stalin, Nationalitat, Psychological community, Multilingual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5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3일

【저자연락처】 jsungkon@hallym.ac.kr